

루머가 SNS를 만나면 뉴스가 된다?

- 루머 확산매체로서 SNS와 저널리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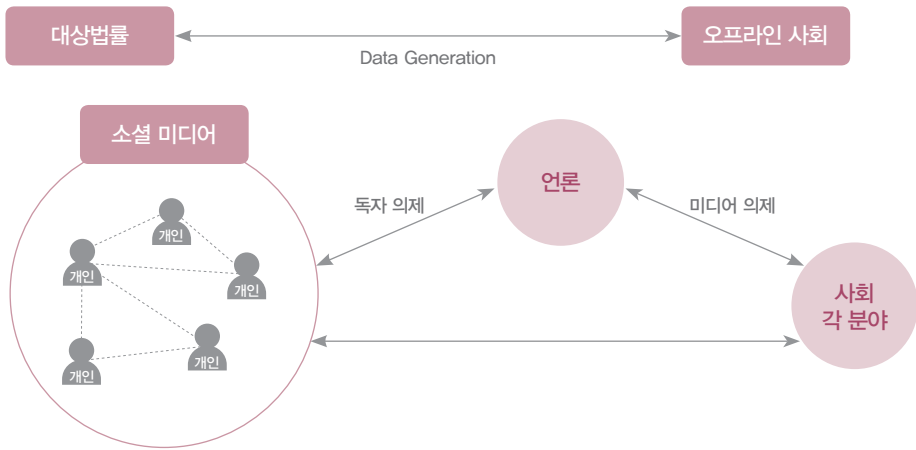
홍주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1. SNS의 등장과 순환적 의제설정과정을 통한 루머의 확산

사드(THADD) 배치 지역이 확정된 이후의 사드 괴담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메르스 괴담, 유행언 괴담, 세월호 루머, 방사능식품 논란, 한미 FTA 루머 등 우리 사회에서 루머나 괴담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건의 발생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 이하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이 일상화된 것이다. '루머'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괴담'은 기이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확산된 루머는 괴담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루머의 전파 속도가 느렸던 과거와 달리,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증가시켜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메시지 확산 범위를 넓히고 시간을 단축시켰다.¹⁾ 사용자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게 되었다.

1) Fawkes, J. & Gregory, A. (2000). Applying communication theories to the internet. *Journal of Communication Management*, 5(2), pp. 109-124.



〈그림 1〉 소셜 미디어를 통한 순환적 의제설정과정²⁾

SNS의 등장으로 매스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은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그림 1〉을 보면 가상공간인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된 정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기사화되며 언론을 통해 사회 전체에 정보가 확산된다. 반대로 언론보도에 대해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시 의견을 공유하는 등 오늘날 의제설정과정은 순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이슈가 확산되는 과정은 매스미디어가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서 보도하면 이용자가 미디어에 의존해 정보를 접하고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발생한 이슈가 언론에 즉각 보도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의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SNS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인 의제설정과정은 사회의 정책을 바꾸거나 정부를 비판, 감시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일련의 루머 확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순환적 의제설정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오보,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된다. 이는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현상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루머 확산 채널로서 SNS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사드 관련 루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 그림은 Trottier & Fucks (2015), *Social Media, Politics and the State: Protests, Revolutions, Riots, Crime and Policing in the Age of Facebook, Twitter and YouTube*, p.16의 Figure 1.2 The process of social media communication을 참조로 재구성한 것임.

2. 루머의 생산 · 확산채널로서 SNS의 특성과 루머의 확산



루머가 SNS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루머가 형성되는 진원지인 SNS의 매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SNS는 개인들이 단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가입자 간 즉각적인 정보 공유,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이다. 선거 때 SNS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와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되며, 정치인의 홍보활동, 정책공지 등 정보 채널(information channel)의 역할도 한다. 이용자들은 관계형성을 위한 채널로 SNS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동성(mobility)을 들 수 있다. 이동성은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장소의 제약 없이 SNS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³⁾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의 융합으로 개개인이 정보를 생산하는 지점(point)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동성은 이용자 간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시켜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켰다. 메시지의 송신과 수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쉽게 집합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즉, SNS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여론 형성이 가능해졌고 이용자의 힘은 커졌다.

이와 같은 SNS의 매체적 특성은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된 괴담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사드 관련 루머를 근거 없는 것과 잘못된 정보로 구분해 봤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루머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루머 내용 중에는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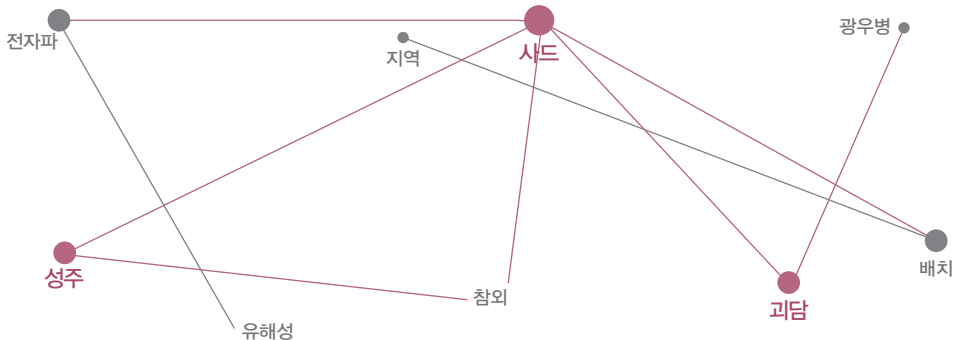
이와 같은 SNS의 매체적 특성은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된 괴담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사드 관련 루머를 근거 없는 것과 잘못된 정보로 구분해 봤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루머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루머 내용 중에는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3) Pick, Y. C. (2010). *Mobile strategies in political communi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Public Communication, Retrieve from www.american.edu/soc/communication/upload

〈표 1〉 사드 관련 루머

루머의 속성	세부 내용
근거 없는 루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암을 유발한다, 아이들에게 전자파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로 인해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다, 치매환자가 속출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종양과 백혈병에 걸린다, 내장 기관이 파열되고 몸이 녹아내린다 •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가 될 것 • 미군이 없는 지역에만 사드를 배치한다, 생체실험을 한다 • 사드 배치는 중국 공격용이다, 주변 항공기 전파를 교란한다 • 수질이 오염된다, 사드 발전기로 인하여 엄청난 소음이 발생(1km 이상까지 전달)한다 • 중국 내륙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 • 국방부가 성주에 육군 50사단 병력 투입을 검토
잘못된 정보(오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5km 범위까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사드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SNS에서 많이 언급된 주요 단어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2〉를 보면, 사드-전자파-유해성, 사드-괴담-광우병으로 연결되어 사드로 인한 전자파의 위험성이 많이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드 괴담을 광우병과 연결지어 광우병 사태 당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다. 사드-배치-지역의 연결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사드-성주-참외의 연결인데 사드 배치로 인해 지역특산물로 유명한 성주 지역의 참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과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사드 참외, 사드 괴담 등 루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사드 관련 연관 검색어 네트워크 분석 : 위세 중심성⁴⁾ 값

4) 위세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위세 중심성 값이 크다면, 위세 중심성 값이 큰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의 중심성 값 분석을 통해 어떤 단어가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3>을 보면 ‘사드’의 매개 중심성이 24,000으로 가장 높아 ‘사드’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 다른 단어와 직접 많이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괴담’ 7,999, ‘전자파’와 ‘배치’가 7,000으로 높았다. 인접 중심성 값은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위세 중심성 값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사드’가 0.243으로 가장 높아 영향력이 제일 큰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참외’가 0.151로 나타났다. 이밖에 ‘괴담’, ‘전자파’, ‘배치’가 0.109로 위세 중심성 값이 높았다.

<표 3> 사드 관련 연관 검색어 중심성 값

단어	연결성	매개 중심성	인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사드	5	24.000	0.091	0.243
괴담	2	7.999	0.063	0.109
광우병	1	0.000	0.043	0.042
참외	2	0.000	0.059	0.151
성주	2	0.000	0.059	0.151
전자파	2	7.000	0.063	0.109
유해성	1	0.000	0.043	0.042
배치	2	7.000	0.063	0.109
지역	1	0.000	0.043	0.042

사드 관련 주요 단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SNS에서 사드로 인한 전자파 발생 우려와 더불어 사드 참외, 사드 괴담처럼 사드와 관련된 루머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의견이나 국방부의 해명, 전자파에 대한 설명 등은 SNS에서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론은 사드 관련 루머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3. 뉴스 취재원으로서 루머의 특성 및 루머 재확산 매체로서 언론의 역할

순환적 의제확산과정에서 루머는 순식간에 사회 전체로 전파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속성을 가진 루머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보면 뉴스 가치가 있다. 사실이나 진위 여부를 떠나 독자들이 루머 자체에 관심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취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루머가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양적인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2월부터 7월 29일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루머가 기사화되었다.

〈표 4〉를 보면 언론에서 사드 관련 괴담을 처음 다룬 2월 11일부터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이 방한해 기자 간담회를 실시한 8월 11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월 24일까지 언론 보도량을 매체별로 검색한 결과 총 1,6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인터넷 매체는 온라인에 기반한 매체를 의미하며, 오프라인 매체의 인터넷 사이트와는 구별된다. 사드 괴담 관련 보도량을 보면 오프라인 매체는 일간지 288건, 방송·통신 465건, 경제·IT지 349건, 지역지 183건이었으며, 인터넷 매체는 405건으로 나타났다.

〈표 4〉 사드 괴담 관련 매체종류별 보도량

매체종류	분석 기간	
	2016년 2월 11일 ~ 8월 24일	
오프라인 매체	일간지	288건
	방송 / 통신	465건
	경제 / IT지	349건
	지역지	183건
인터넷 매체	인터넷 신문	405건
합계		1,69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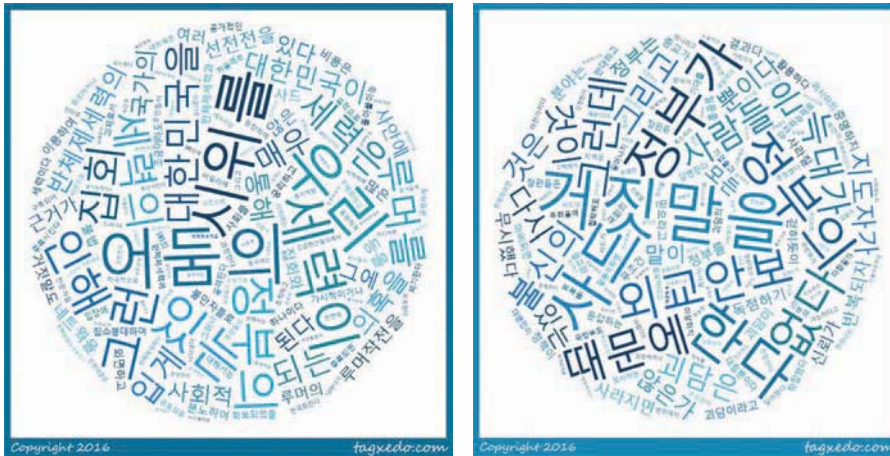
보도량도 중요하지만 사드 괴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반대로 정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사드 괴담을 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생긴 것이다.

〈표 5〉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사드 괴담을 다루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수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사드 괴담이 성주 군민들을 선동한다며 성주 군민이 자신들의 건강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정부 반대 세력 프레임’으로 보았다. 반면, 진보 언론에서는 사드 괴담과 관련된 공영방송 또는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드 괴담 관련 진보 언론의 보도를 ‘괴담 강조 프레임’과 ‘외부세력 부각 프레임’으로 보았다.

〈표 5〉 사드 관련 과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비교 :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헤드라인	보도 프레임
보수 언론	· 천안함· 사드...대한민국 붕괴 노린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⁵⁾ · “사드 과담 모두 거짓, 제2의 광우병 선동” ⁶⁾	정부 반대 세력 프레임
진보 언론	· 공영방송부터 종편까지, ‘사드 검증’은 없었다 ⁷⁾ · 성주 군민 상경집회, 외부 세력 거부만 부각한 <동아> ⁸⁾ · 사드 배치 반대하면 ‘외부 세력’, 전자파 유해성은 ‘과담’?... 성주 군민 고립시키는 언론 보도 ⁹⁾	과담 강조 프레임 외부세력 부각 프레임

〈표 5〉에 나타난 프레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사 내용에 대한 구름단어 분석을 실시했다. 구름단어 분석은 Tagxedo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텍스트에 특정 단어가 많이 등장할수록 크고,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그림 3〉을 보면 왼쪽 그래프는 보수 언론 기사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진보 언론 기사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 3〉 보수 언론¹⁰⁾과 진보 언론¹¹⁾기사 구름단어 분석 결과

5) 양동안 (2016. 7. 26). 〈미디어펜〉. URL: <http://www.mediapen.com/news/view/171035>
 6) 김희진 (2016. 7. 25). 〈뉴데일리〉. URL: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7587>
 7) 이봉우 (2016. 7. 22).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980
 8) 배나은 (2016. 7. 22).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981
 9) 배문규 (2016. 7. 21).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11740001&code=910100
 10) 양동안 (2016. 7. 26). 천안함· 사드...대한민국 붕괴 노린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사드 배치 둘러싼 정부 대 성주 군민의 갈등은 빙산의 일각. 〈미디어펜〉. URL: <http://www.mediapen.com/news/view/171035> 참조.
 11) 김연철 (2016. 7. 24). [세상읽기] 신뢰가 무너지면 늑대가 온다. 〈한겨레신문〉. UR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3664.html> 참조.

보수 언론의 사드 괴담 보도에 대한 구름단어 분석 결과, ‘어둠의’, ‘시위를’,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루머작전으로’, ‘반체제세력’ 순으로 많이 등장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가운데 ‘어둠의’, ‘시위를’이 크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른쪽 진보 언론의 사드 괴담 관련 구름단어 분석 그래프를 보면, ‘거짓말을’, ‘정부가’, ‘외교안보’, ‘사드’, ‘한다’, ‘늑대가’, ‘불신의’, ‘괴담’ 순으로 나타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드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된 루머, 괴담이 언론의 쟁점화에 의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이러한 언론 보도가 다시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순식간에 루머, 괴담이 반복해 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론이 루머를 보도함으로써 루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루머의 인지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SNS에서 확산된 루머가 몇 백 개가 넘는 인터넷 언론과 주류 매체의 인터넷 사이트,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다시 확산되는 등 순환적 의제설정과정을 통해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드 괴담과 관련된 언론 보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드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외부 세력 개입설’, ‘괴담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일본산 식품 방사능 논란,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루머, 괴담이 확산될 때마다 언론의 보도 태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¹²⁾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괴담, 루머에 접근하는 프레임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은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저널리즘 측면에서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는 관점에서 전달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루머를 급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고 늘 루머에 접하는 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12) 홍주현·윤희진 (2014). 트위터를 통한 루머의 확산 과정 연구: 한미 FTA 관련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의견 확산 추이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6호, 59-86면.; 홍주현 (2016).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의 확산 과정 연구: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과 연결성(connectivity) 분석을 중심으로 본 언론의 프레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269-287면.

4. 루머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 과학적 분석을 통한 깊이 있는 보도

SNS 이용자가 증가하고, 대중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루머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의 한 종류가 되었다.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관련 루머가 실시간으로 확산된다. 언론은 루머를 중요한 취재원으로 다루기도 한다. SNS를 통해 루머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이 루머를 어떻게 보도하는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루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이 루머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따라 루머는 잘못된 정보가 되기도 하고 진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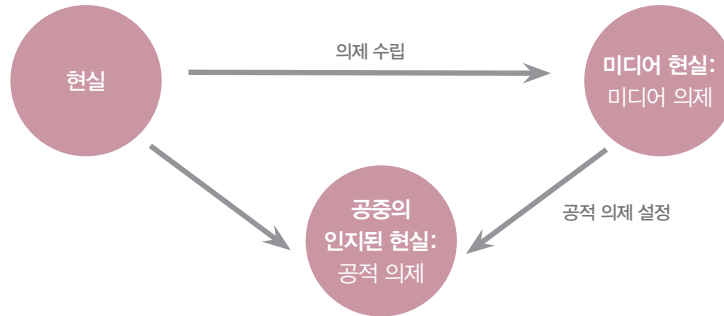
앞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확산된 루머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정부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루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언론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사설·칼럼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원하는 정보만 이용해 서로 다른 현실을 구성하기도 한다.

언론이 루머를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루머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루머를 인지하지 못했던 독자들이 루머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프레임에 따라 루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루머를 다룰 때 선정적 또는 흥미 위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중심의 깊이 있는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어떤 시각에서 쟁점을 다루는지 프레임을 비교하고, 프레임이 독자들의 현실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은 독자들의 현실 인식이 자신이 읽은 기사의 프레임과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¹³⁾ 독자의 주관적 현실 구성에 미디어의 현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림 4〉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독자가 보수적 매체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드 관련 루머를 정부 반대 세력의 음모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진보 성향 독자들의 경우에는 사드 관련 루머를 진실로 믿고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현실을 어떻게 틀 짓는지가 독자들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주는 만큼 언론은 루머를 다룰 때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13) Gamson, W. A. (1989) News as Framing Comments on Graber: Manifest and Latent Content the Picture Messages the Etiology of Content.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3(2), p. 157. ; An, S. K. & Gower, K. K. (2009) How do the news media frame crises? A content analysis of crisis news coverage. *Public Relations Review*, 35(2), pp. 107-112.

〈그림 4〉 미디어의 현실구성과 독자의 현실 구성의 관계¹⁴⁾



기자들은 루머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루머를 취재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루머를 보도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저널리즘을 접목시킬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름단어 분석¹⁵⁾을 활용해 정부의 루머 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정부의 루머 관련 대책을 비판할 수도 있다. 루머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을 해보면 정부의 해명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네트워크 분석¹⁶⁾을 통해 SNS에서 루머와 관련해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시각화 그래프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독자들에게 현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길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다.

또 이 연구에서 활용한 것처럼 특정 주제와 관련해 어떤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는지 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시각화한다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을 구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빅데이터 환경에 놓인 기자들은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반해 사실 중심의 기사를 쓰기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변화에 적응한 기자와 언론만이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향**

14) Berger, P.L. & Thomas, L. (1991.).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Penguin Books.

15) tagxedo.com 프로그램 참조.

16) NodeXL 프로그램 참조.